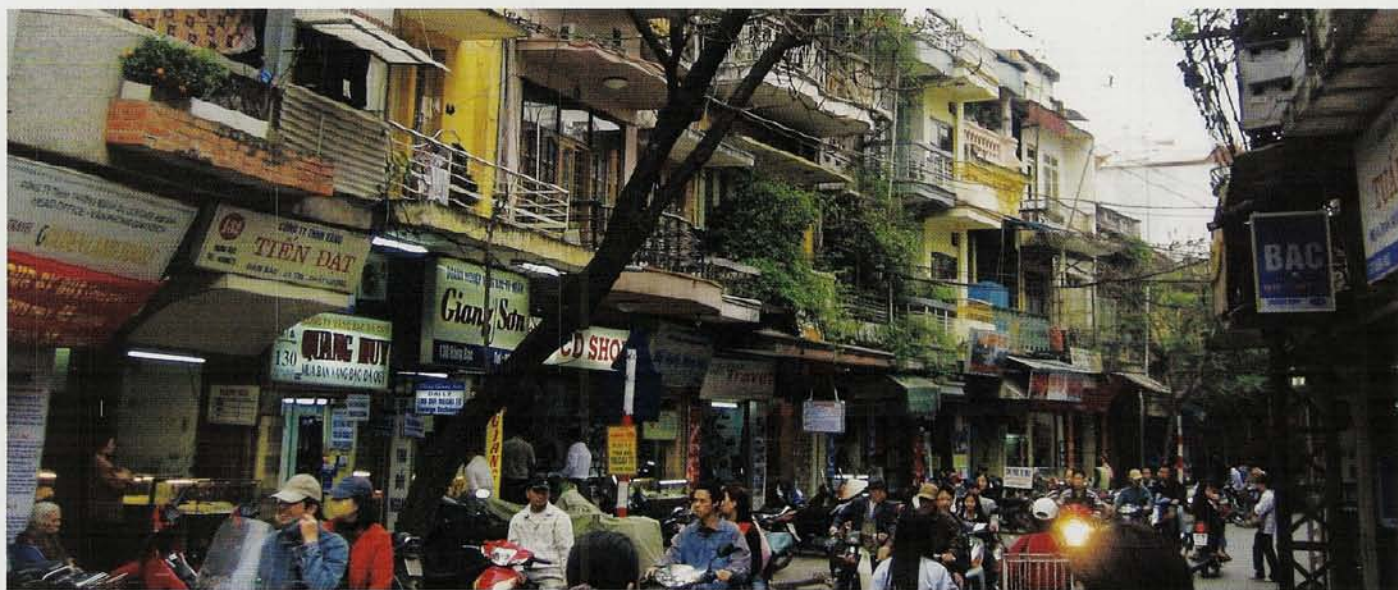


동양의 흑진주

# My Fair Hanoi

감각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맵시 있는 아오자이를 입고 걸음을 옮기는 베트남 여인들의 모습 하나만으로도 이곳이 아시아의 어떤 도시보다 매력적인 곳이란 것을 쉽게 눈치챌 것이다. 전체 인구의 65%가 30대 미만인 젊은 나라. 그래서 늘 새로운 변화를 빠르게 스케치하는 이 나라에서 가장 베트남다운 매력을 지닌 도시, 하노이를 돌아본다.

글 | 이정현(worldCom.) 사진 | 이성란(이건축연구소)  
 일러스트 | 최성희(Kellita & Co.)





1. 오티비한 스킵들로 꾸며진 베트남 정통 레스토랑, '차카 라봉' 2. 대성당을 마주하고 자리 한 부티크 호텔 '치치 호텔' 3. 베트남 전통 민태리어 스킵과 장신구들이 전시돼 있는 '페니처 갤러리' 4. 웅장한 느낌의 데리석 돌기둥으로 장식된 힐튼 호텔 로비 전경



## Hà Nội

대성당에서 호수로 이어지는 거리  
호완 끼엠(Ho Hoan Kiem)

차근차근 돌아보면 하노이의 조금 특별한 '공간'은 두 개의 거리에 인접해 있다. 바로 호완 끼엠 호수와 성 요셉 대성당을 중심으로 한 호수거리, 그리고 구시가지의 정점이 되는 항가이 & 항박 거리다. 하노이 구시가지에 있는 신고딕 양식의 성 요셉 대성당은 하노이 여행의 출발점이다. 내부는 중세 유럽으로 시간이동이라도 한 듯 1886년에 세워진 당시의 모습을 온전히 갖추고 있다. 사각 탑과 정교한 제단, 화려한 스테인드글라스가 특별히 유럽인들에겐 향수를 불러일으킬 만하다. 대성당은 포 나 토(Pho Nha Tho) 거리 서쪽을 향해 서 있는데 그 앞 삼거리가 그야말로 레스토랑, 카페와 부티크들이 들어선 패션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 거리는 하노이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호완 끼엠 호수 주변의 명품 스트리트와 유연하게 연결된다.



당신이 만약 베트남을 마초 기질의 남자들이 좋아하는 전쟁영화의 무대로만 기억하고 있다면 사이공이나 호치민, 그리고 하노이 같은 발음에서 연상되는 부드럽고 매력적인 울림을 한번 환기해 보자. 역사적으로는 과히 좋지 않은 기억의 조각들이 남아 있지만, 그럼에도 베트남은 이상하게도 우리를 들뜨게 하는 무엇(!!)이 있다. 그런데 그 무엇은 여행이 끝나갈 때 즈음 되서야 스멜스멜 기억을 헤집고 형체를 드러낸다.

우선, 베트남을 찾기 전 여행서적을 들춰보지 않는다면 흔히 들어본 사이공, 호치민, 하노이라는 지명 중 어느 것이 이 나라의 수도명인지조차 헛갈리게 된다. 그만큼 친숙한 듯하면서도 실상은 어둡다는 얘기. (사이공은 호치민을 의미하고 실제 수도는 천 년의 역사를 가진 '하노이'이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비단 아마추어 여행가 뿐만 아니라 하노이에 관한 가이드북에서도 엿볼 수 있다. 지도도 맞지 않고 추천하는 레스토랑들도 찾아가 맛을 보면 눈살을 찡그리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이는 비교적 여행안내서가 충실한 다른 아시아 도시들의 경우를 생각한다면 다소 의외가 아닐 수 없다. 심지어 '정통' 한 소개로 유명한 론리 플래닛에서도 실수를 발견하게 되는 도시가 바로 하노이다. 가이드북의 개정 속도를 앞지를 정도로 도시가 너무 빠르게 변해서일까? 아니면 서양인들의 관점이 우리와 사뭇 다른 무엇(!!)이 있는 것일까?

## 송(song)

대성당 바로 앞, 거리 모퉁이에 자리한 솜으로 자연주의 라이프 스타일을 표방하는 패션 부티크다. 물가 싸기로 유명한 베트남인이라 이곳의 높은 가격표가 더욱 두드러지지만 뛰어난 디자인과 품질 때문에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외국 관광객이 많아서인지 스태프들의 응대와 영어 실력도 훌륭하다.  
 ☎ 27 Pho Nha Tho ☎ 8914-4088  
 @ www.asiasongdesign.com

## 모자이크(mosaïque)

조명제품과 가구, 인테리어 소품 등을 판매하는 토탈 리빙숍이다. 자수가 놓인 린넨제품, 유색 비즈로 장식한 액세서리 등이 인기 아이템으로 하노이에 머무는 외국인들이라면 누구든 한번쯤은 들를만한 필수 방문코스다.

비즈 액세서리는 10달러 내외면 맘에 드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고 고급스럽게 디자인된 유럽풍의 린넨 소품들도 20달러면 충분

하다. 가격과 품질 모두 만족할 만한 곳.

☎ 12 Hoa ma St. ☎ 4971-3797  
 @ www.mosaiquevietnam.com

## 크리에이션(creation)

대성당을 정면으로 봤을 때 왼쪽으로 난 길 중앙에 위치한 이 솜은 언뜻 보면 인테리어 디자인 솜 같은 분위기를 풍긴다. 두 개의 연결된 쇼룸은 캐노피가 드리워진 실크제품 전시장으로 이어지는데 파스텔톤의 고급스런 실크제품들이 맞춤형 제작 형태로 판매되고 있다. 가구와 은제 찻잔, 다기류도 취급하는데 가격 책정도 정직한 편이다.

☎ 21 Nha Chung St. ☎ 4928-8937  
 @ www.creationvietnam.com

## 마레나(marena)

옷칠 그릇과 도자기 그릇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테이블 웨어 전문점으로 우리나라로 치면 광주요 정도의 분위기다. 전 제품이 핸드메이드 제품으로 하노이의 각 호텔 기념

품 부티크로 물건이 공급된다. 부드럽고 온화한 느낌의 파스텔톤 다기는 디자인도 소박한 편이어서 특히 유럽인들에게 인기가 많다. 크리에이션 맞은편에 위치해 있다.

☎ 28 Nha Chung St. ☎ 4828-5542

## 그외 호수 주변의 명품 솜들

대성당을 비껴 호수 쪽으로 걸음을 옮기면 곧 이틀만 들어도 알 만한 브랜드들의 로드 솜이 이어진다. 첫 번째 시선을 잡는 룩시땅(36 Le Thai To St. Tel: 828-9844)은 자체 내 스파를 두고 가벼운 발 마사지부터 안면 마사지까지 독특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 옆엔 일본인 관광객들을 겨냥한 시세이도솜.

이 거리 끝에 자리한 QT살롱 앤 스파는 하노이 시내에만 전부 4곳에 지점을 두고 있을 만큼 유명한 곳이다. 총 5층으로 이루어진 공간에 베트남 스타일의 스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시간 정도의 발 마사지는 특히 여성 여행자들에게 강추할 만한 프로그램으로 가격은 20달러 정도.

## 레이크 스트리트

패니 아이스크림(Fanny Ice Cream) 하노이 시내 최고의 아이스크림 가게로 평판이 높다. 호치민과 하이퐁에도 지점이 있다. 프랑스-베트남 식 아이스크림과 크레이프를 판다.  
 ☎ 828-5656

파리스 델리(Paris Deli) 오페라 하우스 맞은편에 있는 파리 스타일의 카페-레스토랑이다. 맛 좋은 바게트 샌드위치와 패스트리를 팔고 가벼운 식사는 3만동부터.  
 ☎ 934-5269

노 누들스(No Noodles) 샌드위치와 생과일 주스를 판매하는 바로 테이크아웃이 가능하다. ☎ 928-59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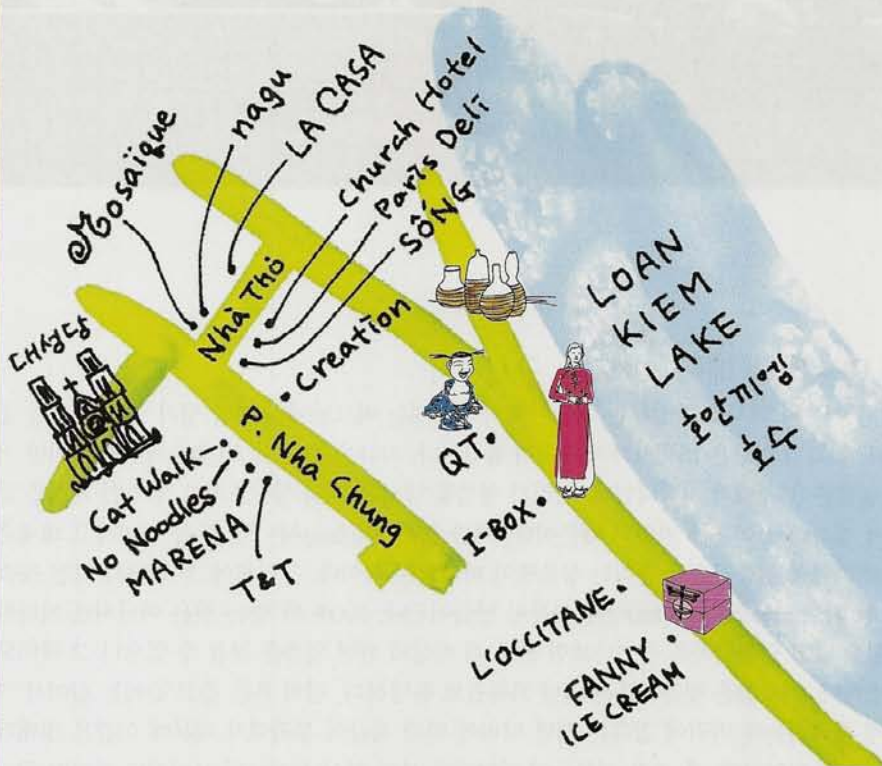
라 까사(La Casa) 가구와 인테리어 소품들을 판매하는 곳. ☎ 7473-756 @ www.lacasavietnam.com

갯 워크(Cat Walk)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실크, 린넨, 대나무같은 소재로 만든 디자인 핸드백 솜으로 가격을 저렴하다. ☎ 928-6890

나구(nagu) 인테리어 소품숍이라곤 하지만 대담으로 만든 의류와 스테이셔너리만 눈에 띄는 컨셉트는 빈약한 공간. 사이퐁에도 지점이 있다.  
 ☎ 933-3462 @ www.zantoc.com

I-Box 하노이 최고의 바란 네페임을 솜에 걸어 두었다. 서구적인 디자인으로 외국인들에게 인기 있는 곳.  
 ☎ 828-8820

T&T 옷칠 그릇 전문으로 다른 곳에선 좀처럼 보기 힘든 디자인의 다양한 옷그릇들을 갖추고 있다. ☎ 928-5421





**베트남 하우스(Vietnamese House)**  
깨끗한 유리창에 문턱을 달아놓은 상점 문이 인상적이다. 독특한 외관이 허름한 거리를 빛내주는 이곳은 정통 앤티크 하우스. 파인 아트 보석과 수공예품, 도자기, 인테리어 소품들을 취급한다. 주변 다른 상점들에 비해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공간이다. 유색 대리석 장식품도 디자인이 다양하고 가격도 기대했던 것보다 저렴한 편이다.

☎ 92 Hang Bac St. ☎ 826-2455  
@www.vietnamehouse.com

### 하노이실크(Hanoisilk)

저렴한 서비스 태도로 거슬렸던 카이실크 점원들보다 100배 더 친절한 서비스를 기대해도 좋다. 경쟁이 치열한 실크 전문점 중에서도 약간 모던한 디자인 제품을 갖춘 곳. 맞춤을 할 경우 반나절만에 완성해서 손님이 묶는 호텔로 보내주는 서비스도 이용 가능하다. 핸드백이나 파우치 같은 패션 소품들의 디자인과 정교함도 뛰어난 편.

☎ 77 Hang Bac St. ☎ 9262-134  
@www.hanoisilkvn.com

### 엠브로이더리 하우스 (Embroidery's House)

프랑스 문화의 영향으로 베트남엔 솜씨 좋은 자수장인들이 많다. 여기에 인건비가 저렴한 것도 한몫을 해서 거의 모든 린넨제품과 실크제품에 자수 디자인이 사용되고 있다. 침구랑 식탁 테이블보, 크고 작은 파우치와 소품들에는 한결같이 아름다운 디자인의 자수 스티치가 놓여져 있다. 구두나 속옷을 싸 넣을 수 있는 여행용 파우치가 인기 아이템으로 대당 가격은 약 4천원 정도.

☎ 13 Hang Bac St. ☎ 926-1622

### 숍 하 트랑(Shop Ha Trang)

옷칠 박스함, 나무그릇, 대나무 바구니 등이 다양한 곳인데 호수 주변상점에 비하여 가격 대비 품질이 매우 우수하다. 마메이 거리 트래디셔널 하우스 맞은편에도 있다. ☎ 52 Hang Bac St. ☎ 926-1042

### 古家(Memorial House)

항 박과 마메이 거리에는 전통가옥들이 여러 채 남아 있어 이를 보수하여 카페나 바로 사용하기도 한다. 그중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고가(Memorial House)는 전형적인 중국식 가옥으로 19세기 후반에 이 거리에 처음 세워진 주택이다. 1999년에 복원되어 입장료 5천동을 받고 있다. 1층에는 거실과 부엌이 있고 바로 외부 중정과 접하게 되는 형식이며 거주하는 곳은 2층이다. 나무계단으로 이어진 2층에서는 중정을 내려다보는 베란다가 있고 침실이 중정을 사이에 두고 다시 반복되는 특이한 형식이다. 우물과 부엌, 화장실이 드물게 잘 보존되어 있으며 짙은 나무색의 가구들도 상당히 남아 있다. 장인이 수공예품을 제작하여 품질이 우수하다. ☎ 87 Ma May St. ☎ 762-7961

### 모닝 스타(Morning Star)

수공예 전문점으로 옷칠을 한 칠기나 형형색색의 대나무 그릇이 풍부하게 진열되어 있다. 적당히 흥정하면 가격을 깎아주기도 해서 요령껏 구매의사를 밝혀야 한다. 우리나라 강남의 인테리어 숍에서 15만원 정도에 판매되는 대나무 그릇 3개 세트를 고작 1/10 가격에 살 수 있다.

☎ 95 Ma May St. ☎ 926-2400

### 구시가지 골목길(항 박거리)

**차카 라봉(Cha Ca La Vong)** 시내에서 가장 유명한 차카(가을치를 이용한 전통 베트남요리) 레스토랑으로 5대에 걸쳐 100년이 넘도록 한 가문이 경영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메뉴는 이 요리 한 가지뿐이다. ☎ 825-3929

**베트남 하우스(Vietnamese House)** 각종 골동품과 귀중품을 취급하는 매력적인 가게로 인테리어도 독특하다. ☎ 826-2455

**퍼니처 갤러리(Furniture Gallery)** 극장으로 사용되었던 창고같이 넓은 곳인데 높은 천정에 휘장을 두른 인상적인 실내장식이 약간 동화적인 감상에 젖게 한다. 골동품과 유화, 가구와 수공예품을 소장하고 있다. ☎ 826-9769

**My Nghê(대나무 그릇가게)** 셀러드볼과 대형 접시 등 원색의 대나무 그릇을 진열 판매한다.



### shopping know-how

정실제로 판매되는 곳은 외관이 번듯한 매장이거나 카이실크, 하노이실크 같은 유명 브랜드 숍. 앤티크 숍이나 기타 상점에선 흥정하기 나름이다. 대나무로 만든 그릇류나 실크제품, 옷칠 소품 종류는 여행 내내 만날 수 있으니 그때마다 가격을 물어보고 제일 저렴한 곳을 찾는 게 현명하다. 만약 실크로 만든 제대로 된 이오자이(남부지방에선 이오야)라고 발음한다.를 구입할 생각이라면 사이즈와 주문시간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의 평균 체격이 우리보다 작기 때문에 의류에 표시된 사이즈보다 한 차수 더 큰 것을 주문하는 게 맞다. 만약 맞춤옷을 희망한다면 도착한 첫날 의류를 피팅하고 호텔로 배달해 달라고 하는 게 편리하다. 하루 정도의 시간이면 대개의 디자인을 맞출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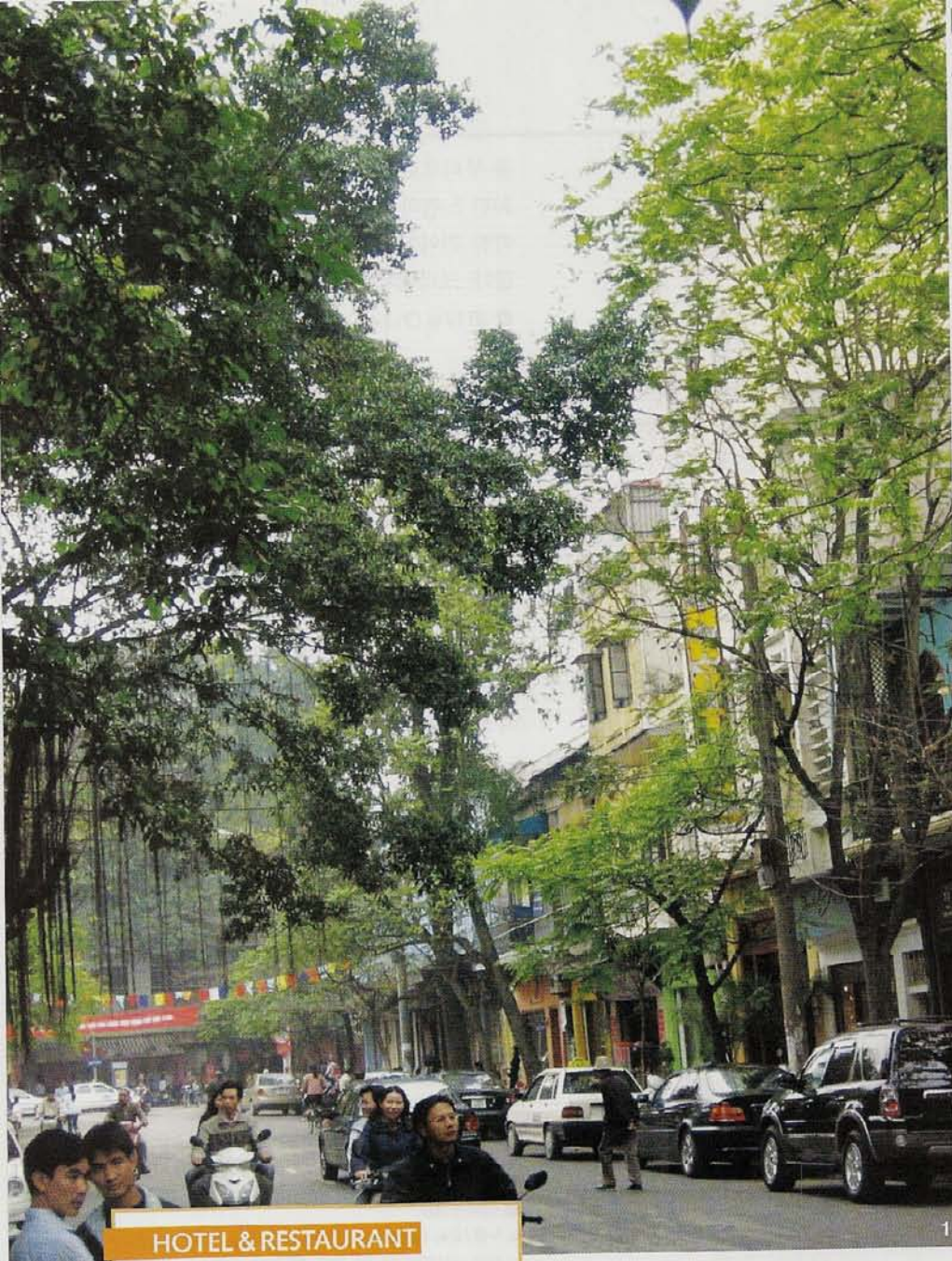
물론 독사나 독충들로부터 성기를 보호하려는 이유에서 비롯된 풍습입니다. 그렇지만 서서 소변을 보는 것 자체도 어떤 의미를 가지는데, 다소 모호하지만 그것은 손상되지 않은 신체로서의 여성, 곧 하나님께서 가장 완전한 여성으로 마사이 여자를 만들었다는 전설이 그것입니다. 한번은 마사이족 교사에게 “혹시 그녀들도 앉아서 소변을 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더니 “뭐라구! 그럴 리가 없을 텐데.” 하더군요.

여성 할례는 앵고이보니라고 하는 여자 무당이 집행합니다. 여성 할례는 남자의 경우보다 훨씬 위험한 것이며 위험한 만큼 사회적으로 강력한 것이지요. 그것은 클리토리스와 소음순의 일부를 제거하는 일입니다. 여성이 되는 의식이지요. 그렇게 해서 여러 날 동안 서지도 앉지도 못한 채 기어다니며 마침내 부족의 일원이 되는 소녀들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결혼할 수 있는 여성들에게 할례가 너무도 심한 상처와 후유증을 주기 때문에 정작 결혼해서도 아기를 순산하기가 어렵습니다. 생식기에 큰 손상을 가져오므로 임신도 어렵고 해산도 어려워 사산하거나 산모가 죽는 일이 많습니다.

생각해보면, 1995년 내가 카자아도에서 여자학교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바로 여성 할례 장면을 목도한 이후입니다. 지금 여성 할례관습은 도시에서나 시골에서 점차 사라지고 있지만 마사이뿐 아니라 아프리카 많은 나라에서 여전히 시행되고 있는 강력한 관습입니다.

다민족사회인 케냐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부족적 특징이 나타나는 민족이 마사이족입니다. 전통적인 관점에서 부족적 특징이야말로 가장 아프리카다운 자존입니다.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드넓은 마사이의 땅과 문화가 어떻게 개발되고 보존될는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물통을 지고 광야를 지나는 마사이 아낙의 벗은 발등이 빗물로 젖어가기를 힘니다. 어서 이 땅이 본래대로의 마사이 세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빌어봅니다.

글을 써주신 시인 황학주 씨는 시집 《사립》으로 등단하여 《너무나 많은 생의 담요》, 《루시》 등의 시집과 《인디언 마을로 가는 달》, 《아카시아》 등의 산문집을 펴냈다. 2005년에 사진작가 김중만 씨와 함께 작업하여 발표한 사진 시집 《아프리카, 아프리카》에서도 그의 투명한 아프리카 사랑을 느낄 수 있다. 현재 국제민간구조단체 피스프렌드 대표를 역임하고 있다.



1 대성당 앞 거리에는 레스토랑, 카페, 부티크 호텔 등이 자리한다. 2 250년 된 시냇물 개조해 만든 '브러더스카페'. 베트남 전통 차를 즐길 수 있는 곳이다. 3 푸이 좁은 권량이 아끼자기하게 늘어서 있는 거리 풍경.

## HOTEL & RESTAURANT

**소피텔 메트로폴호텔(Sofitel Metropole Hanoi** ☎ 826-6919 @ [www.accorhotels.com/asia](http://www.accorhotels.com/asia))은 베트남 최고급 호텔로 1901년에 지어진 프렌치 콜로니얼 스타일의 건물이다. 베트남 유일의 루이비통 숍도 이 호텔 아케이드에 자리하고 있다. **힐튼 하노이 오페라 Hilton Hanoi Opera** ☎ 933-0500 @ [www.hilton.com](http://www.hilton.com))는 고풍스런 유럽 풍의 건물로 웅장한 오페라 하우스 바로 옆에 자리해 있다. 전형적인 미국식 힐튼 호텔, 아메리칸 스타일로 제공되는 아침식사 메뉴가 훌륭하다. **부티크 호텔 중 드 실로이아 호텔(De Sylva Hotel** ☎ 824-5346 @ [www.desylva.com](http://www.desylva.com))은 붉은 타일 지붕이 있는 콜로니얼 빌라 스타일의 작고 우아한 모습으로 호텔 안에 있는 베트남 레스토랑 **카이 카우(Cay Cau** ☎ 933-1010)가 유명하다. 또 다른 호텔로는 대성당 앞에 위치한 **처치호텔(Church Hotel** ☎ 928-8118 @ [www.churchhotel.vn](http://www.churchhotel.vn))로 외관이 좁고 높은 전형적인 베트남 건축 스타일이다. 레스토랑은 베트남 대표적인 요리인 차카요리로 유명한 **차카 라봉(Cha Ca La Vong** ☎ 8239-876)과 베트남 국립 파인아트 박물관에서 멀지 않은 250년 역사를 개조하여 동서양의 매력을 실린 **브러더스 카페(Brother's Cafe** ☎ 733-3866 @ [www.brothercafe.com](http://www.brothercafe.com))를 추천할 만하다.

## 천 년 세월의 매력에 빠지는 구시가지

천 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하노이의 구시가지는 베트남에서 가장 생기 있고 독특한 곳이다. 거리의 이름은 13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지금은 물론 약 50개의 거리가 있지만 처음 출발은 36개에서 시작되었다. 거리가 형성될 당시 36개의 상인조직이 각각 한 거리를 맡아서 정착해서 이름을 지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항(Hang)은 '상품'을 의미하고 대체로 그 거리에서 전통적으로 팔리는 상품명이 따라오는 식이다. 그리하여 '비단거리'라는 뜻의 포 항 가이(Pho Hang Gai)라는 이름이 만들어진다. 100% 딱 맞는 것은 아니지만 거리의 이름을 알고 골목골목을 들여다보면 한두 개 이상의 관련 업종을 찾을 수 있으니 그 재미도 각별하다. 미로같은 뒷골목들은 터널 가옥들로 유명하다. 집의 폭은 좁고 길이는 길어서 그렇게 불러지는데 거리에 접하는 정면 너비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이같은 형태가 유래하게 되었다. 폭 좁은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 위태로워 보이기도 하지만 확실히 이국적(!)이긴 하다.